

2016년 통권 제 2호

2016年度
歷史紀行班
江華島踏查



亞洲大學校

목차

- 답사 일정
- 우리가 가는 길
- 강화도 지역개관
- 강화 역사박물관

<선사시대>

1. 강화지석묘

<고려시대>

2. 전등사
3. 정족산 사고
4. 고려궁지

<조선시대>

5. 갑곶돈대
6. 광성보
7. 덕진진
8. 초지진

<개항기>

9. 병인양요
10. 신미양요
11. 성공회 강화성당

답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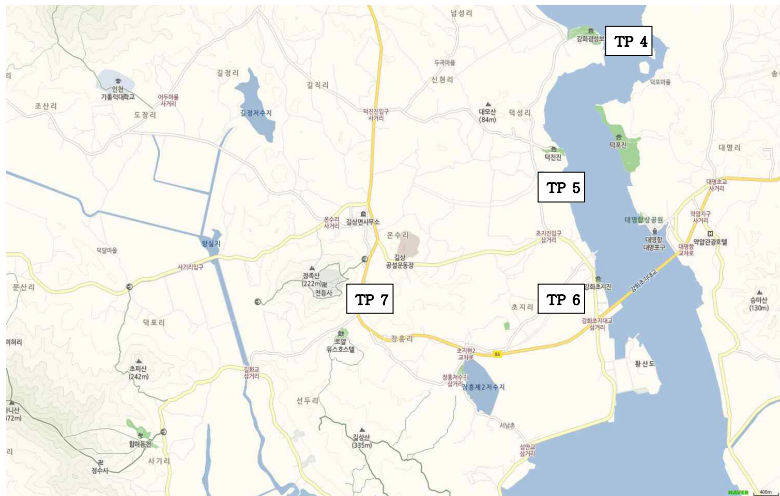
<첫째 날>

강화 역사박물관 → 강화지석묘 → 갑곶돈대 →
광성보 → 덕진진 → 초지진 → 숙소

<둘째 날>

숙소 출발 → 전등사 → 고려궁지 → 성공회 강화
성당 → 아주대학교 도착

우리가 가는 길



TP1. 강화역사박물관	5. 덕진진
2. 강화지석묘	6. 초지진
3. 갑곶돈대	7. 전등사
4. 광성보	8,9. 고려궁지, 성공회강화성당

강화도 지역개관

16 이의경



▲ 고대군사제에 나타난 강화도의 옛 모습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남북 길이 30km, 동서 길이 12km의 섬입니다. 처음에는 김포반도와 연결된 육지였으나 오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육지에서 구릉성 도서로 격리되었습니다. 강화도는 본래 고구려의 지역으로 ‘혈구군’ 또는 ‘갑비고차’라고 불렸습니다. 신라 35대 경덕왕이 해구 군으로 개칭하였고, 고려 태조(서기 940년)에 이르러 강화 현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고려 고종(서기 1232년) 때 강화군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 덕분입니다. 고려 수도인 개성과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물길로 연결 되어 있었습니다. 수로를 통해 수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는 국란이 있을 때 빠르게 피신하기 좋았고, 세곡 운반의 기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 강화도가 대몽 항쟁의 중심지였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대몽 항쟁 당시 전쟁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는데, 이때 인쇄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원사, 팔만대장경 그리고 훈맹정음 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강화도는 불교와 성리학, 양명학까지 다양한 학문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특히 양명

학자들은 강화학파로 발전하여 이후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항일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외세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서구 세력의 대표적인 외세 침략 사건으로 덕진진과 광성보 유적에서 그 당시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초석이 된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은 초지진 유적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인돌 유적과 단군 신화의 참성단부터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연무당까지, 강화도는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아름답고 역동적이었던 우리의 역사를 직접 느끼고 선조들의 얼과 숭고한 정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강화도 역사박물관

16 이소연

강화도 역사박물관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해상관문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우리나라의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은 이러한 강화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서



▲강화역사박물관 입구의 모습

강화도의 유물을 전시해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연구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립 박물관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은 원래 갑곶돈대에 위치해 있었으나 박물관의 규모가 작아 강화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2010년 확장 이전을 해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은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을 먼저 둘러보고 나와 1층을 둘러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2층에는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의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퀴즈를 풀 수 있고 기념사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해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박물관의 1층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실도 함께 운영되는데, 이곳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을 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영상실과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되어 강화도 역사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강화역사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 등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동종

강화 동종은 조선시대 뛰어난 승려이자 장인으로 활동한 사인비구에 의해 숙

종 37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범종입니다. 무게는 약 4톤이고 높이는 198cm, 구경은 138cm입니다. 이 종은 강화내성의 4대문을 여닫는 시각을



▲ 강화 동종

알리는 데 사용되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이 종을 보물 11-8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종 꼭대기에는 용 두 마리가 좌우로 얼굴을 맞대고 고리 역할을 해 그 밑으로 종 이 매달려 있습니다. 종 윗부분은 둥근 반원 모양으로 생겼으며 종의 어깨부분에는 꽃잎을 세워 장식하던 것이 변형된 모습으로 추정되는 ㄱ자형의 돌출이 있습니다. 어깨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 있는 사

각형 모양의 유곽¹⁾ 안에는 9개씩의 연꽃으로 된 돌기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몸통을 상·하로 2등분하는 가로선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꽃무늬를 새긴 넓은 띠가 있습니다. 강화 동종은 고려 종의 양식이 퇴화되어 중국 범종의 형태를 받아들인 조선시대 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범종(梵鐘)의 윗부분의 네 곳에 있는 네모난 데

선 사 시 대 (先 史 時 代)

강화지석묘

강화 지석묘

16 김기영



▲ 강화도 하점면의 지석묘 사진

만들지만, 남방식 고인돌과는 달리 돌을 끼지 않고 묘실 위에 상석을 바로 올린 지석묘도 있는데, 이를 변형 지석묘라 칭합니다. 강화도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지석묘 유적이 많은 곳이며, 우리나라에는 3만 여기에 가까운 지석묘가 존재하는데 그 중 강화도에 북방식 지석묘 44기, 남방식 지석묘 35기 총 79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군 송해면과 하점면에 걸쳐 지석묘들이 분포하여 있는데 강화도 지석묘는 그 중 하점면에 위치해 있으며, 하점면에 존재하는 40여 개의 지석묘 중 강화 지석묘는 경기도지방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북방식 지석묘입니다. 이는 전체 높이가 2.6m, 덮개로 쓰이는 돌은 6.5m, 너비 5.5m의 남한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북방식 지석묘는 4매의 켜돌²⁾과 직사각형의 돌방³⁾을 구축하여 있으며, 그 위에 뚜껑을 얹어 놓는 방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인돌은 2매의 켜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강화도 지석묘 유적을 통해서 강화도에 청동기 시대 당시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고창, 화순의 남방식 지석묘 유적과 함께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그 문화적 가치도 인

지석묘란 청동기 시대 당시 인간들이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무덤의 형식으로 지은 것이며, 흔히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지석묘의 종류로는 탁자처럼 세운 탁자식 지석묘, 즉 북방식 지석묘와 무거운 돌을 받침돌로 써 판만 놓은 바둑판식 지석묘, 즉 남방식 지석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묘실을

2) 물건이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끼는 돌
3) 석재를 쌓아서 만든 무덤의 매장시설

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강화 지석묘는 분포의 남한선상에 가까이 위치했다는 점이 특이하여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지, 이스터 섬의 모아이 등과 함께 거석문화로서의 지석묘를 감상하며 다른 지석묘 유적에 비해 크고 아름다운 강화도 지석묘의 조형미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고 려 시 대 (高麗時代)

전등사
삼랑성
고려궁지

전등사

16 허정희

전등사의 창건

선사시대부터 ‘병인양요’까지 강화도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때문에 강화도에는 많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등사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뜻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불교 근본도량’으로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등사는



▲ 전등사의 늦가을 풍경

현재 삼랑성 안에 위치 해 있으며 창건된 시기는 서기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이라고 합니다. 진나라로부터 온 ‘아도 화상’이라는 분이 전등사를 처음으로 창건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도 화상은 신라에 불교를 전하였는데 이때 강화도를 거쳤다고 합니다. 아도 화상이 강화도를 거쳐 갈 때 현재의 전등사가 위치한 곳에 절을 지었고 그 당시에는 전등사라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진종사(眞宗寺)’라고 하였습니다.

전등사라는 이름의 유래

‘진종사’에서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 정화공주의 옥등설화가 있습니다. 1282년(충렬왕 8년), 정화공주가 진종사에 옥등을 시주하면서 사찰 명칭을 ‘전등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정화공주는 송나라에서 펴낸 대장경을 구해 승려 인기에게 전등사에 보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 전해진 대장경으로 인해 진종사에서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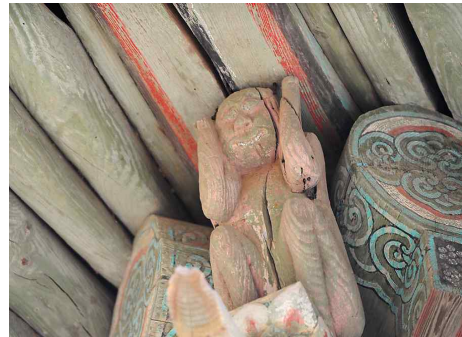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등사의 대조루를 증건할 때 ‘육조의 의발을 상수(相授)하는 뜻에서 전등사’로 개칭했다고 모연문에 기록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전등사 내 문화재 - 대웅보전

전등사 내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보물 178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세밀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내부의 화려한 장식이 건축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석가여래 삼존, 후불탱화, <법화경>목판 104매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웅보전의 외부는 비슷한 시기의 건물과 차이를 보이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건물들과 달리 지붕의 곡선이 심하며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웅보전에는 나부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나부상에 관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등사를 건설한 도편수에게는 사랑하는 주모가 있었는데 도편수는 나중에 주모와 함께 살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노임을 주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모는 다른 사람과 도망갔고 이에 도편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주모의 형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 대웅보전의 모습



▲ 전등사 내 나부상

목조석가요래삼불좌상

두 번째 문화재인 목조석가요래삼불좌상은 대웅전 안에 있고 1623년(조선 광해군 15년) 수화승(우두머리 조각승)이었던 수연이 조성한 목조불상이다. 목조석가요래삼불좌상에서 삼존불은 삼세불이라고도 하고,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의 세 분의 부처님을 말하며 과거, 현재, 미래불을 함께 모셔 삼존불이라고도 한다. 이 삼존불은 자비롭고 근엄하다는 점에 있어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의 표현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 목조석가요래삼불좌상

약사전

세 번째 문화재는 약사전입니다. 약사전에는 질병으로부터 중생을 구원해준다는 ‘약사여래’를 모신 곳으로 건축 형식이 대웅보전과 비슷합니다. 처마의 선이 매끄럽고 화려하며 안 솔림과 귀솟음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천장의 가운데에는 우물천장을 두고 그 주변에는 화려한 연화당초문이 그려져 있지만 벽화를 건물 밖에는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약사전의 모습

범종

네 번째 문화재인 전등사 내 범종은 1097년에 제작된 것인데 중국 북송시대의 철제범종 종류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된 유일한 중국종입니다. 이 범종의 높이는 1.64m이며 구경은 1m라고 합니다. 종뉴의 주위에는 16개의 연잎, 9개의 국화 무늬가 새겨져있고 음통이 없으며 띠가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중·하의 구획에 따라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의 외부에는 8개의 네모난 곳에 글씨가 있는데 그 의미를 해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종의 특징은 기하학적 무늬로 되어있고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종도 일제 강점기의 수모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제 말기 때 공출이란 명분으로 일본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지만 해방된 뒤 부평의 군기창에서 발견되어 지금까지 전등사에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전등사 내 범종

명부전

마지막 문화재는 명부전입니다. 명부란 염마왕이 다스리는 유명계나 명토를 이르는 말로 명부전에서는 지장보살을 모시며 죽은 이의 넋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전각입니다. 창건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767년(영조 43년) 한영대사가 시왕을 다시 칠했다는 기록을 통해 이 보다 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명부전 내에 있는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은 우리나라 보물 786호로 목조석가요래삼불좌상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조 불상들은 아름답기도 하고 독특하며 보존 또한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운데에는 지장보살상이 있고 왼쪽에는 무독귀왕, 오른쪽에는 도명존자가 있습니다. 본래 이 삼존상 뒤에는 후불탱화가 있으며 그 옆의 좌우로도 2점씩의 불화가 있었지만 도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 명부전(밤에 찍은 모습)



▲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전등사의 역사적 가치

전등사는 고려 시대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강화에 있는 궁궐이 몽골군에 의해 폐허로 변할 때에도 전등사는 꾸준히 사세를 유지해 나가서 고려 왕실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록 1614년(조선 광해군)때 전등사도 화마를 겪었지만 1621년 지경 스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되어 옛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후 1678년(숙종)때부터 조선왕조실록을 전등사에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등사 대웅전의 기둥과 벽화에는 여러 낙서들이 있는데 그것은 병인양요 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병사들이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등사가 나라의 어려움을 이기고자 했던 점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랑성

16 윤세명, 16 최종환

삼랑성 개관



▲ 삼랑성의 동문

여러 신료들이 머물 수 있는 가(假)궁궐을 지을 터를 물색하다가 삼랑성과 그 아래 신니동(神泥洞)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 때부터 마니산에 사고를 설치하여 서책들을 보관했습니다. 그 곳에 보관되던 책들은 현종1년(1660)에 정족산성 사고로 옮겨졌다가, 다시 외규장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이후에는 병인양요로 인해서 프랑스군에게 화를 입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서적들은 대부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족산성 동문 안에는 프랑스 군을 물리친 양헌수 장군의 병인양요 승전 비각이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군함 7척 함재대포 10문 병력 1,000명으로 강화를 점령하였습니다. 양헌수장군은 천총에 임명되어 대군을 이끌고 통진부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계획을 꾀하였습니다. 장군은 강개 포수 500여명을 이끌고 덕포에서 비밀리에 심야 잠도작전을 전개하여 정족산성(鼎足山城)을 점거하였습니다. 160명의 프랑스군은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조선군이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에게 일제히 포격을 가함으로써 일대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은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60, 7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양헌수군의 피해는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뿐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정족산에 자리 잡은 한 산성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고 해서 삼랑성(三郎城)이라고 하고, 정족산에 있어서 정족산성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왕족들과

삼랑성 구조

기존의 강화도의 성들은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인데 비해 삼랑성은 돌로 쌓은 견고한 석성입니다. 성은 전등사를 감싸고 있으며 성 둘레의 길이는 약 2000m 정도이고 성벽의 높이는 최소 2m에서 3m입니다. 성(城)이라면 보통 4개의 성문과 누각을 가지는데, 삼랑성도 원래는 이러한 성문과 누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소실되어 없어지고 종해루인 남문은 1976년에 복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전등사의 입구인 삼랑성문은 당시의 삼랑성 동문으로 남문과 마찬가지로 복원되었으나 아쉽게도 나머지 두 문과 종루는 없어지고 성곽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705개의 화살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모두 파손된 상태입니다.

고려궁지

16 이승훈

고려 궁지 개관



▲고려 궁지

고려 궁지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위치한 고려 시대의 궁궐터입니다. 고려 궁지는 고려 고종 때인 1232년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고 이에 항전하기 위해 왕도를 강화도로 옮긴 뒤 원종 때인 1270년 다시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간 고려 왕궁터로 이용 되었습니다. 고려 고종 19년에 최우가 모

든 백성들을 동원하여 궁궐과 관청, 다른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해 궁궐을 완성 시켰습니다. 이때의 궁궐의 모습은 원래 도읍 이었던 개경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궁궐 뒷산의 이름까지도 송악이라 했습니다. 강화도에는 많은 궁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궁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문은 승평문 이었고 양쪽에 삼 층루의 문이 두 개가 있었으며 동쪽에 광화문이 있었지만 다시 개성으로 수도를 옮길 때 강화 조약 때 몽골의 요구로 인해 허물게 되었습니다. 후에 인조 때인 1631년에 들어서 행궁을 고려 옛 궁터에 건립했습니다. 또한 장녕전을 지어 조선 태조와 세조의 영정을 모시고 국란에 강화도를 피난지로 이용했습니다. 육상궁, 어의궁, 용동궁, 명례궁, 수진궁과 강화유수 부 건물들과 규장외각을 건립해 많은 장서와 문서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과 병인양요 때 많은 유물과 유적이 소실되었습니다. 이후 강화 고려 궁지는 1964년 사적 제13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77년 고려 궁지를 보수하면서 담을 설치하고 고려 궁지 진입로 옆에 있었던 강화 동종을 옮기고 경역에 보도를 설치해 경내⁴⁾를 조성했습니다. 1977년 당시 고려궁지의 발굴 작업이 있었고 고려시대 청자와 기와

4) 경내 - 일정한 지역의 안

편들만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고려 궁터에는 동헌과 이방청, 건축기단, 돌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강화 유수부 동헌



▲ 강화 유수부 동헌

걸친 개조로 인해 원형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화 유수부 동헌은 고려 궁지 내에 위치한 조선시대 행정 책임자인 유수가 업무를 보던 관아 건물로 이는 오늘 날의 군청의 역할과 같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정면 8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⁵⁾ 겹처마 단층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외규장각



▲ 외규장각

하였습니다. 하지만 1866년 고종 때 병인양요에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서적이 약탈당하고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2003년에 건물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약탈되었던 서적들에 대한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82년 정조 때 조선시대 왕립 도서관격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으로, 왕실 서적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

5) 팔작지붕 - 한식(韓式) 가옥의 지붕 구조의 하나로, 함각(合閣)지붕·팔작집이라고도 한다. 지붕 위까지 박공이 달려 용마루 부분이 삼각형의 벽을 이루고 처마끝은 우진각지붕과 같다.

강화 유수부 이방청

강화 유수부 이방청은 강화유수부의 행정 실무자들이 업무를 보던 곳으로 고려궁터의 강화 유수부 동헌 앞에 위치한 조선시대 관아 건물입니다. 구조는 ㄷ자형 단층기와집으로 방 8칸, 마루 12칸, 부엌 1칸으로 이



▲ 이방청

루어져있습니다. 개조와 보수 때문에 원형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 있어 조선시대 지방관아 중 하나인 이방청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방청의 벽에는 강화도의 백성들이 국난을 극복한 현장도와 전적지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림과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 선 시 대 (朝 鮮 時 代)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갑곶돈대

16 송태훈

갑곶돈대 개관



▲ 갑곶돈대의 전경

오늘날 사적306호로 지정된 갑곶돈은 뒤에 위치한 문수산성과 함께 강화도의 입구인 강화해협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요새입니다. 갑곶돈대는 고려시대 대몽 항정시기인 고종 19년(1232)부터 원종 11년(1270)까지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후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고, 후에 조선 인조 22년(1644)에 설치된 제물진(갑곶진)에 소속된 돈대로 숙종 5년(1679)에 축조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강화도의 입구에 위치한 요충지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조선시대 당시 최신식 대포인 불랑기, 소포를 도입하여 요새를 한 층 강화하였습니다. 후에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 함대의 상륙지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양헌수 장군이 삼랑성(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내기 전까지 프랑스군의 점령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876년 일본군이 6대의 함선을 이끌고 이곳에 상륙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새의 구조는 대포 8문이 배치된 포대로 구성되었으며, 돈대는 작은 규모의 보루를 만들고 대포를 배치하여 길목을 지켰습니다. 1977년에는 새로이 보수, 복원이 이루어져 성곽을 추가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갑곶돈대 이름의 유래로는, 첫째 삼국시대에 강화도를 갑비고차라 부르면서 갑곶이 유래되었으며, 둘째 고려 시대 당시 몽고군이 강화도로 건너려고 하다 실패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기를 ‘우리 군사들이 갑옷만 벗어서 바다를 메워도 건너갈 수 있을 텐데’라고 비유, 한탄했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갑곶돈대의 구조

강화도는 일반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5진 7보의 군사요새가 위치해 있으며, 이 진과 보 밑으로 53개의 돈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중 갑곶돈대가 이 돈대들의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대(墩臺)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높

고 평평한 곳을 뜻하는 자연지형을 지칭하는 말로, 따라서 이는 외적의 침략이나 선박을 감시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돈대 지형에 성곽이나 변방의 요지에 구축하여 총구를 설치하거나, 봉수대를 건설하여 정찰, 방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갑곶돈대는 다른 보통의 돈대와 다르게 강화도에서 육지와 가까운 돌출형의 구릉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성벽을 원형이나 직사각형 구조로 축조하지 못하고, 그 자연지형에 따라 성벽을 쌓아놓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많은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진, 보처럼 큰 요새의 이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의 입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후에 군대가 주둔하는 등 규모가 진과 보 못지않게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성보

16 박현지

광성보 개관



▲ 광성보

광성돈대 등 소속 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성보에서 언덕을 올라서면 신미준의 충, 무명용사비, 쌍충비각과 손돌목돈, 그리고 용머리처럼 뻗어 내린 바닷가 암반 위의 용두돈은 천연의 요새지로서, 용맹무쌍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성보는 현재 사적 제 227호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음력 4월 24일에는 어재연 장군을 비롯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무명용사들에 대한 광성제가 11:00부터 봉행된다고 합니다. 이 광성보는 당시에 사용한 대포와 포대, 성이 잘 남아 있고 멀리 내려다보이는 바다전망과 돈대의 곡선 모양이 인상적입니다.

광성보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번지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요새입니다. 광해군 10년(1618년)에 고려시대의 성을 보수하고 1656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광성보는 건축된 이후 여러 번 보수되었는데, 숙종 때 일부를 돌로 고쳐서 쌓았으며, 용두돈대, 오두돈대, 화도돈대,

광성보와 신미양요

광성보는 신미양요 때(1871) 미국의 로저스가 통상을 이유로 콜로라도호를 포함한 군함과 1,230명의 군사로 덕진진과 초지진을 점령한 후, 조선군 지휘관이었던 어재연장군을 비롯한 조선군 300여명과 백병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어재연장군은 처음으로 한미전이 일어났던 그 때 우리나라 의장과 백성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갔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미군 함대는 사전허가 없이 강화해협을 침공했고, 손돌목에 이를 때 수비병들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미국 측은 배상과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그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많은 병사

를 보유했지만 열악한 무기를 가져 다시 시작된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열세한 무기로 싸웠고 포탄이 떨어지면 창과 무기로 싸우고 창과 무기가 떨어지면 맨 주먹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장렬하게 싸웠지만 결국 몇 명 빼고 순국하였습니다. 어떤 미군장교의 기록에 의하면 끝까지 싸웠던 병사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진지를 지켰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포로가 될 것을 거부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성보 전투가 치열했으며 그 속에서 우리나라 선조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진진(德津鎭)

16 고재훈, 16 안소진

덕진진의 개관



▲ 덕진진

본래 고려시대부터 외성의 요충지였던 것을 병자호란 이후 강화해협의 방어를 위해 효종 7년(1656)에 덕진진을 축성하였습니다. 이때 5개의 진과 7개의 보(광성보 포함, 12진보⁶⁾), 53개의 돈대가 건설되었는데 덕진진도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1679년(숙종 5년) 용두돈대와 덕진돈대를 거느리고 덕진포대와 남장포대를 관할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강화도 12진보 중 제일의 포대를 갖춘 진이 되었습니다. 덕진진 이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진으로는 용진진과 초지진이 있습니다. 현재 덕진진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으면 덕성리 373번지이고 1971년에 사적 제 22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7세기 당시에는 덕진진이 수영에 속해 있어 첨사⁷⁾가 파견되었는데 현종 7년(1666)에 강화유수 서필원⁸⁾의 건의로 첨사를 덕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진진에는 별장을 두었다가 다시 숙종 3년(1677)에 유수 허질의 건의로 그곳은 만호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덕진진의 모습은 신미양요 때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1976년 ‘강화전적지 정비사업’으로 대대적인 보수 및 복원 작업을 거친 후의 모습입니다. 무지개 모양의 홍예만 덩그러니 남아 있던 성문(공조루)을 비롯하여 성곽과 돈대를 보수, 복원하였습니다. 강화도의 8개 포대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포대인 남장포대도 이 때 보수되었습니다. 또한 누각도 다시 세웠고 당시의 포와 같은

6) 월곶진, 제물진, 용진진, 덕진진, 초지진의 5진과 광성보, 선두보, 장곶보, 정포보, 인화보, 철곶보, 승천보의, 7보를 합쳐 강화 12진보라고 한다.

7) 조선 시대 각 진영에 속한 중3품의 무관으로, 첨절제사의 약칭입니다.

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습니다. 대동법 시행에 찬성하여 『전남도대동사목』을 반포하였으며, 관직에 있을 때 민생을 구휼하고, 각종 폐단을 없애려 노력하였습니다.

모조의 포를 만들어 배치하였습니다.

150여 년 전 덕진진은 역사의 소용돌이의 최전선에 있었던 격전지였고, 조선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양헌수 장군은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군에 맞서 정족산성으로 진입할 때 덕진진을 거쳤습니다. 산성에 자리를 잡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조선군은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러나 덕진진에서 보다 중요한 사건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과의 전투입니다. 조선군은 J. 로저스가 지휘하는 미 극동함대와 격렬한 포격전을 벌여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히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초지진에 상륙한 미 해병대에 의해 점령당했고 이 때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복원을 거쳐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건물 - 남장포대



▲ 남장포대



▲ 포의 모습

덕진진에 소속된 장남포대는 강화해협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15문의 포가 있었다고 하는데 포는 모두 바다 쪽을 향해 있습니다. 바다 쪽에서 보면 요새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지형을 잘 활용하여 축조된 비밀 요새입니다. 신미양요 때 덕진돈대와 함께 맹렬한 포격으로 미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초지진

16 박정원

초지진

초지진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일본에 의한 운요호사건이 일어났던 격전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소재한 1656년(효종 7년) 해안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요새였지만 1679년 성으로 축조되었습니다. 면적은 4,233㎡로 작은 편이며, 1971년 사적 제2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초지진에는 병마첨절별사 1명, 군관 11명, 군사 320명, 배 3척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또한 1679년(숙조 5년)에 축성된 초지돈, 장자평돈, 섬암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격전이 일어나고 대부분이 허물어졌고, 1973년 초지돈만 복원되었습니다. 초지돈은 높이 4m 정도에 장축이 100m쯤 되는 타원형의 돈입니다.



▲ 초지진 전경

1871년(고종 8년)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신미양요가 발생합니다. 6월 1일 미군함대는 강화해협으로 들어와 탐측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손돌목에 이르자 침략행위로 판단한 강화도 수비병들이 집중포격을 가했는데 이에 미국이 보복하고자 군함 2척과 육전대원 644명을 앞세우고 강화도 해협 앞에서 약 2시간 동안의 함포사격을 실시한 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하여 무력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그 후 미군은 진내(鎭內)에 있는 시설물을 파괴, 소각하였다.

1875년(고종 12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 포대에 불법으로 접근하

여 조선군이 방어를 위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맞서 운요호도 초지진을 향해 공격하였고, 이후 초지진은 폐쇄되었다가 1973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초지진의 성벽과 소나무에는 아직도 격전 당시 포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 초지진 성벽에 남아있는 포탄의 흔적



▲ 소나무에 남아있는 포탄의 흔적

홍이포

강화도 내에 있는 포들은 대부분이 모형이지만 초지진 안에는 유일하게 진품인 홍이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즈음 당시 유럽에서 만들어진 포를 보고 중국에서 비슷하게 만든 포를 모두 ‘홍이포’라고 합니다. 1626년(인조 4년)에 벌어진 영월 전투⁹⁾에서 명군이, 1636년(인조 14년)에 병자호란¹⁰⁾때 청군이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인조 때에 들여오게 되었고, 1866년의 병인양요, 1871년의 신미양요,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사건 때 사용하였습니다. 홍이포의 길이는 2.15m, 무게 1,800kg, 구경 100mm이며 사정거리는 700m입니다. 홍이포를 방어화기로 사용할 경우 탄환에 직격될 경우에는 큰 피해를 당하지만 작렬탄이 아니기에 피해 범위가 넓지 않고, 포탄 자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력은 약한 편입니다.



▲ 초지진에 전시되어있는 홍이포

9) 1626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명군이 홍이포를 이용하여 후금군으로부터 승리하였다.

10) 1636년(인조 14)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제2차 침입으로 일어난 전쟁.

개 항 기 (開 港 期)

병인양요

신미양요

성공회 강화성당

병인양요

14 유정선

배경

철종 시기에 조정은 천주교에 관대하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프랑스인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 전교에 힘써서 천주교인 수가 약 2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던 1864년 러시아의 통상요구가 들어왔고 천주교 교사들이 러시아가 아닌 프랑스, 영국과 삼국동맹을 주선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통상요구가 시일이 지나고 삼국동맹도 무산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를 지탄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차에 흥선대원군의 처소인 운현궁에 천주교도들이 드나든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대왕대비 조씨와 정부 관료들이 천주교도들의 행동을 비난하자 대원군은 천주교 탄압을 단행하였습니다. 1866년 천주교 탄압령이 내려지고 천주교도 8천명이 살해되고 프랑스 선교사 12명중 9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3명 중 1명인 리텔 신부는 탈출하여 중국 텐진에 있던 로즈 제독에게 알리고 제독은 남은 2명을 살리기 위해 조선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청국은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 국가이며, 공범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거병을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조선과 수교 관계가 없다는 점과 조선은 정치적 독립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프랑스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현지 사령관인 로즈의 주재 하에 군사적 응징 원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병인박해라는 사건입니다.

경과

로즈제독에게 소식을 들은 주중공사 벨로네는 로즈제독에게 조선 침략을 명령하였습니다.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서울까지의 뱃길을 탐사하기 위해 3척을 이끌고 1차 원정을 행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서강 까지 수로탐사를 한 후 후퇴한 후 로즈제독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1866년 음력 10월 14일 강화도의 갯갑진을 점령하고 서울에 이르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여 조선정부를 궁지에 몰아 항복을 받기 위해 한강을 봉쇄하였습니다. 10월 16일에는 강화부를 공격, 점령하고 한강을 봉쇄한 뒤 조선 측에 신부들을 살해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조선정부는 수문영이라는 군대를 설치하고 이경하, 이기조, 이용희, 양현수 등의 장군들을 문수산성, 정족산성에 파견하여 도성 수비를 강화하고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퇴거할 것을 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회답을 통하여 선

교사 학살을 극구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습니다. 프랑스군 약 120명은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 미리 잠복하여 대기중이었던 한성근의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상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부터 민가·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에까지 미쳤습니다. 11월 7일에는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 아래 160명의 프랑스 해병이 정족산성의 공략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양현수(1816-1888) 장군의 뛰어난 매복전술로 인해 프랑스군은 6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당하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조선군은 1명의 사상자와 3명의 부상자를 냈다. 정족산성 대패 이후에 로즈 제독은 조선침공의 무모함을 깨닫고 11월 11일에 철수를 결정하고 철수하면서 강화도에 있던 금은괴와 대량의 무기들과 외규장각에 있던 조선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례 297권을 포함한 도서 359점을 약탈하여 청나라로 철군하였습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의 침입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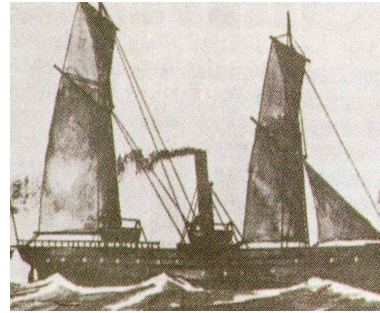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프랑스군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기존에 고수하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척화비를 세우게 되고 쇄국양이정책을 고집하여 천주교의 탄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 들일 수가 없어서 근대화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반발하는 세력이 등장하였고 조선을 근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화를 면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미양요

16 박우진

전투의 원인 : 제너럴셔먼호 사건

신미양요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삼아 1866년, 미국과 조선 사이에 일어난 전투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미양요의 원인은 1866년에 발생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입니다. 미국국적의 배인 제너럴셔먼호는 1866년 150여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승무원 중 영국국적인 토마스는 한국말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관리들은 이들이 조선에 온 목적을 물었고, 토마스는 단지 교역을 하러



▲ 제너럴셔먼호

왔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교역은 반대하였지만 식량 등 보급품을 제공하는 데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 후 관리들은 상급관리와 상의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셔먼호는 전달에 내린 비, 조수차로 인해 여느 때 보다 깊었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평양 서쪽에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조선인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을 제지하던 중군, 이현익을 감금시켰습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자 평양내의 관민은 격분하여 셔먼호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소총과 대포를 쏘아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동강의 수위는 평상시의 수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셔먼호는 낮아진 수위 때문에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승무원들은 소총과 대포를 쏘아대며 평양 사람 7명을 사망시키고 5명을 부상 입혔습니다.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는 작은 배 수백 척을 이용하여 제너럴셔먼호에 불을 붙였습니다. 많은 승무원들은 타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맞아죽거나 대포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투의 경과

미국은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제너럴셔먼호에 대한 배상을 바로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너럴셔먼호 사건 5년 후인 1871년,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가 군함 5척을 이끌고 왔습니다. 물치도를 정박지로 정한 미군은 강화도 앞바다를 탐측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며 강화도로 접근했습니다. 강화도를 지키던 조선군이 경고포격을 날리자 미군은 일단 물러나기는 하지만 미군은 경고용 사격에 대한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초지진, 덕진진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성진을 정복하려던 미군은 조선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대략 8시간동안 진행된 이 전투에서 조선 측은 대장 어재연을 비롯하여 240여명이 전사하였고 100여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기가 부서진 조선군은 모래를 뿌리며 저항했습니다. 미군은 장교 1명, 사병 2명의 전사를 비롯하여 10여명이 부상당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전투에 승리한 미군은 수자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첨사(僉使) 이염이 초지진을 야습하여 미군을 물리치자, 미국 측도 이 이상의 공격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후퇴하게 됩니다.

전투의 결과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인양요에 이어 또다시 서양의 침략을 막아냈다고 생각한 흥선대원군이 이끄는 조선정부는 서양 세력과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시행하던 쇄국정책에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되어 나라의 문을 더 단단히 닫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조선정부는 조선 전체에 서양과의 교역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인 칙화비를 세웠습니다. 신미양요의 결과, 조선은 나라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게 되고 주위의 나라보다 근대화가 느려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16 최윤환

성공회 개관

‘성공회’라는 종교는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자신의 혼배성사 무효 문제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대립하던 끝에 영국 왕을 수장으로 세우고 성직자들을 영국 왕에게 종속시키기 위해 생겨난 기독교 종파로, 신부, 주교, 성당, 미사 등 로마 가톨릭과 용어를 공유할 만큼 비슷하지만, 결혼이 불가능하고 남자만 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사제와는 달리 성공회는 여성도 사제가 될 수 있고, 사제의 혼인도 가능한 등 로마 가톨릭과는 엄연히 다른 분파입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인 만큼 성공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고, 조선 역시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강화성당의 유래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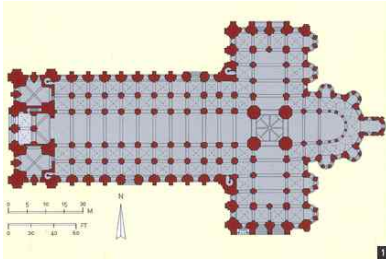
▲ 성공회 강화성당 본당, 사적 제 424호

인 주교들은 강화도에 조선 최초의 성공회 성당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성공회 초대 주교였던 존 코르페는 주교 성품을 받은 직후인 1889년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금을 모았고, 이듬해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워너 신부가 입국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조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7년 뒤 강화도에서 두 명의 조선인이 첫 영세를 받은 것을 계기로 영국

강화성당의 구조

강화 선교의 일환이었던 강화성당은 트롤로프 주교의 설계아래 1900년에 지어졌다. 성당의 외양은 마치 불교 사찰 같은 모습의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 성당의 전통 양식인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 큰 특징입니다. 외부를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었던 이유는 외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목재는 대부분이 백두산에서 채취해온 나무들인데, 성당의 아치형 출입문은 영국산 참나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아치형 출입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



▲ 바실리카 양식 건물의 평면도

양식 자물쇠 장식이 달려있습니다. 용마루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본당의 현판에는 천주성전(天主聖殿)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으며, 외심문에는 태극무늬와 함께 성공회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등 한옥의 외양이면서도 기독교적 건축물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상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본당 다섯 기둥의 한문 문장



▲ 외심문의 태극무늬와 문장

성공회 강화성당의 본당 기둥에는 북경 북천주교회 내부에 실려 있었다는 다섯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는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한문으로 옮길까를 고민했던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섯 문장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福音宣播啓衆民永生之方 (복음선파계중민영생지방)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민중에게 영생의 길을 깨우치라.

神化周流罔庶物同胞之樂 (신화주류유서물동포지낙)

하느님께서서는 물이 동산을 둘러 흐르게 하시고 만물을 살찌우시니 이는 동포의 기쁨이다.

三位一體天主萬有之眞原 (삼위일체천주만유지진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참 근원이시다.

宣仁宣義聿昭拯濟大權衡 (선인선의율소증제대권형)

인을 베풀고 의를 베풀어라.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구제하는 것이 큰 정의다.

無始無終先作形聲眞主宰 (무시무종선작형성진주재)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 창조하기 앞서 소리를 드러내시니, 참 주재이시다.

<참고문헌>

1. 강화도 지역개관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2

최보길,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 2014

강옥엽, 『仁川文化財의 歷史教育的 역할』, 인천학연구, 2002

범선규, 『강화도의 수리와 지형』,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4

2. 강화도 역사 박물관

이동연, 『강화도 : 미래신화의 원형』, 푸른세상, 2003

박은우, 『강화의 세월』, 학연문화사, 2006

3. 강화 지식묘

최보길,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 2014

박영순, 『강화 고인돌(지석묘) 유적(遺跡)』, 국토연구원, 2004

이성모, 『노천 박물관 강화도 역사기행』,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2015

4. 갑곶돈대

김희균, 『답사여행의 길잡이 7 - 경기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2012

박은우, 『강화의 세월』, 학연문화사, 2006

5. 광성보

박용순, 『광성보와 신미양요』, 국토연구원, 2004

이동미, 『강화도』, 김영사, 2004

이경수, 『역사의 섬』, 신서원, 2002

6. 덕진진

안옥근, 『호국의 섬, 강화도』,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0

신영주, 『우리아이 첫 강화도 여행』, 삼성당, 2013

7. 초지진

이경수, 『역사의 섬 강화도』, 신서원, 2002

박상표, 『[역사기행자료] 서대문 형무소와 강화도』, 2005

강석화, 『17, 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시대사학보, 2013

이태희·정민채, 『역사·관광학적 관점을 통한 강화도 전적지에 관한 연구』, 한국

사진지리학회, 2006

8. 전등사

이경수, 『(역사의 섬) 강화도』, 신서원, 2002

강옥, 『문화 기행: 유구한 역사의 고장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신병주, 『조선 최고의 명저들』 휴머니스트, 2006

9. 삼랑성

유홍준, 『답사여행의 길잡이7-경기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1996

윤용혁, 『강화 삼랑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고려궁지

최보길,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 2014

박영순, 『강화산성(江華山城)과 고려궁지(高麗宮址)』, 국토연구원, 2004

김락기, 『개방과 교류의 인천사를 위하여 - 강화 고려궁지 발굴의 의미』, 인천문화재단, 2009

11. 성공회 강화성당

김수자, 『섬 전체가 역사박물관인 강화도 - 지식묘 군, 이규보 묘, 성공회 강화성당』, 새가정사, 1999

서미원, 『[가…봅시다!] 성공회강화성당을 찾아서』, 새가정사, 2008

이환진, 『[신학기고] 성공회 강화성당 본당 다섯 기둥에 쓰있는 한문 문장』, 대한기독교서회, 2014

12. 신미양요

김용구, 『약탈제국주의와 한반도』, 원, 2013

최태성, 『한눈에 사로잡는 한국사』, 들녘, 2011

13. 병인양요

신동준,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 살림, 2007

권희영, 『한국사의 근대성 연구』, 백산서당, 2001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7: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 열강』, 한길사, 2003

ENDING CREDIT

지도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편집자

15 정영찬

15 박건희

16 박민지

16 하금지

제작자

역사기행반 16학번

아주대학교 사학과 소학회

역사기행반

2016. 6.